캔버스 위에서 나눈 선문답



미술관에 간 스님
보일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원



보일 스님은 1월 13일 서울 카페콤마에서 〈미술관에 간 스님〉 출간 기념 북토크를 개최했다. 사진=신중일 기자

미술관에서 만난 34명의 선지식
명작이 건네는 위로·가르침 안내
"예술, 고통 다루는 다정한 방식"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병으로 누이를 잃고 평생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뭉크, 불편한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야 했던 톨루즈 로트렉, 불의의 교통사고로 서른 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던 프리다 칼로, 전쟁과 박해 속에서도 사랑의 향기를 그려 낸 샤갈.

이들은 수많은 상실과 좌절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림을 그렸고, 자신의 고통을 창작의 에너지로 전환해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우리가 그들의 그림을 보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것은 작가의 삶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일 스님(AI부디즘연구소장)은 "이들은 붓다의 가르침처럼 고통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방의 길을 찾아낸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예술 작품을 보는 스님의 눈길은 작품의 미학적 가치보다 그 뒤편에 서 있는 한 인간의 생애와 마음의 궤적에 머문다. 예술은 그렇게 탄생한 고통의 열매이며, 동시에 다시 살아갈 힘을 건네는 자비의 손길이라는 것이다.

〈미술관에 간 스님〉은 보일 스님이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삶의 고단함을 보듬어 주는 예술 작품을 소개한 책이다. 명작의 이면에 가려진 상처와 좌절, 절망과 극복의 이야기를 불교적 사유로 읽어내며 미술 감상이 곧 수행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책에는 34명의 예술가가 등장한다. 카라바조, 고흐, 뭉크, 프리다 칼로, 샤갈에서 로스코, 바스키아, 뱅크시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양식을 넘나드는 이들의 작품은 모두 한 인간이 고통과 화해하고 이를 창작으로 승화시킨 기록이다. 스님은 그 작품 속에 고(苦)·무상(無常)·연기(緣起)의 진리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차분히 짚어 나간다.

스님은 잭슨 폴록이 화면 위에 흩뿌린 혼돈의 궤적에서 화엄의 법계연기(法界緣起)를 읽고, 앤디 워홀의 끝없이 복제된 이미지 속에서 색즉시공(色卽是空)을 되새겼다. 마르셀 뒤샹이 변기 하나로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부술 때 선사의 거침없는 할(喝)과 방망이 소리를 들었고, 마크 로스코의 거대한 색면 앞에서는 침묵의 언어로 전해지는 깊은 위로와 공(空)의 세계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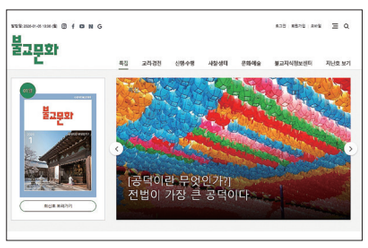
보일 스님은 "붓다의 가르침이 삶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에서 시작됐듯,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 역시 시대의 아픔과 개인적 고뇌를 온몸으로 껴안는 과정에서 탄생했다"며 "그들은 캔버스 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본질을 묻고, 존재의 허무와 마주하며, 찰나의 아름다움 속에서 영원을 길어 올렸다"고 말한다.

특히 AI(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불러온 인간 소외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예술이 지닌 치유와 통찰의 힘에 주목한다. 미술 작품과의 깊은 교감이 단순한 감상을 넘어 데이터로 환원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감각을 일깨우고 '지금 여기'의 나를 자각하게 하는 수행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일 스님의 설명을 따라 삶과 죽음의 경계, 고통과 불안의 시선이 담긴 작품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이 책이 미술관으로 가는 안내서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인 이유다.

월간 '불교문화' 디지털 웹진 전환





월간 '불교문화' 웹진.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이 발간하는 불교 대중 문화지 월간 '불교문화'가 올해 1월호(통권 제30호)부터 '디지털 웹진'으로 전면 전환했다. 앞으로 '불교문화'의 콘텐츠는 모바일과 웹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은 연 1회 우수 콘텐츠를 담은 종합호(오프라인 종이 잡지)도 발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후 첫 호인 1월호 특집은 '공덕이란 무엇인가'이다. '복을 비는 일'로만 오해되기 쉬운 공덕을, 불교가 오래도록 답해 온 질문인 "무엇을 쌓고, 무엇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가"로 다시 풀어 본다.

구상진 진흥원 이사장은 '전법이 최고의 공덕이다'를 통해 8정도·6바라밀 등 공덕행의 핵심이 외형적 '유루복'의 축적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을 통해 해탈로 나아가는 무루공덕에 있음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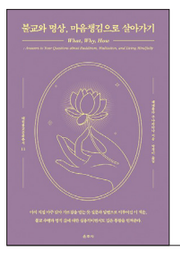
송덕사 주지 원빈 스님은 'AI시대에서 공덕의 자산을 늘리는 법'에서 재물의 지혜를 갖추되 수행 정진을 놓지 않고 공덕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온전한 행복에 이를 것을 권한다. 김재권 능인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는 '일상 속 공덕의 실천적 의의'에서 일상 속 공덕을 자기 성찰(자이)과 사회적 실천(이타)의 조화로 살리면 SBNR(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세대와도 접점을 넓혀 '진정한 행복·깨달음'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정리한다.

혜담 스님(불광법회 선덕)은 '불성을 지닌 사람은 모두 공덕을 지니고 있다'를, 정병조 동국대 명예교수는 '나눔과 회향'을 통해 공덕의 의미를 되짚는다.

이와 함께 '불교 핫플레이스-설악산 봉정암', '사찰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양주 회암사', '슬기로운 수행생활-글렌 라마' 등의 특집을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일상의 물음에 답하는 불교의 지혜



불교와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기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지음 / 박경미 옮김
운주사 / 2만4000원

명상·수행에 대한 질문에 답하다
20개 주제로 엮은 마음챙김의 길

현대인에게 명상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수행 중 겪는 의문과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이르면 발걸음이 머뭇거린다. 세계 각국을 다니며 수행을 지도해 온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애칭 '반테 G')의 신작은 바로 그 지점에서 길을 밝혀 준다. 〈불교와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아가기〉는 스님이 지난 반세기 동안 명상과 불교 수행에 대해 받은 수많은 질문에 일상의 언어로 답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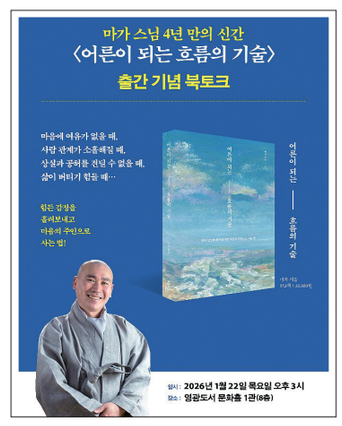
책에는 "바쁜 일상 속 명상은 어떻게 실천할까", "업과 윤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좌선 중 통증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깨달음은 가능한가"와 같은 질문과 스님의 답이 담겨 있다. 스님은 추상적인 설명 대신 경전의 구절을 함께 제시하며 불교의 근본 뜻을 일깨운다. 독자는 해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마주 앉아 격의 없이 문답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느낌을 받는다.

스님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중적 명상'의 한계도 분명히 짚는다. 단순한 심리 훈련이나 휴식에 그치는 명상에 머물지 말고, 탐욕·증오·어리석음을 뿌리 뽑기 위한 수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중과 통찰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마음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기 쉽지만, 마음챙김은 그런 경향을 알아차리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실제적인 방법임을 일깨운다. 불교는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고 삶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독자들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을 필요 없이 20개의 주제 가운데 지금 부딪히는 문제를 골라 책장을 펼치면 된다. 스님 특유의 명료하고 쉬운 문장은 수행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가르침의 깊이는 놓치지 않는다.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은 1927년 스리랑카에서 태어나 12살에 사미계, 20살에 비구계를 받았다.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쳤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행을 지도했다. 현재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바바나소사이어티 숲속 수도원'에 머물고 있다.

마가 스님, 부산서 신간 북토크 개최



마가 스님이 신간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 출간을 기념하는 북토크를 1월 22일 오후 3시 부산 영광도서 문화홀 1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북토크는 신간에 담긴 주요 메시지를 중심으로, 삶과 감정의 흐름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마가 스님은 집필 과정에서의 고민과 책에 담은 핵심 화두를 직접 풀어내며, 독자들과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은 상실과 공허, 관계의 소원함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태도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북토크에서는 책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삶 속에서 감정을 다루는 방식과 성숙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관객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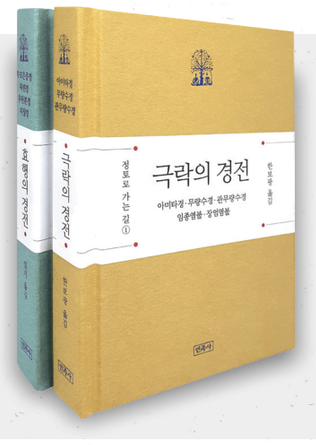
가장 따뜻한 위로, 마음을 밝히는 한 권의 경전
스테디 셀러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